

# 중동전쟁 충격 뚫고 광주·전남 수출 200억 달러 호조

## 4월까지 무역수지 58억3300만 달러 흑자 전년비 43.7%↑...미국·중국을 부진 지속

중동전쟁 악재에도 수출이 회복세를 이 어가면서 올해 광주·전남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 한 60억 달러에 육박했다. 다만 주요 교역 국인 미국과 중국지역 수출 부진이 두드러 지면서 증가세는 다소 꺾인 모습이다.

17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집계 결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한 58억3300만 달 러, 수입은 1.0% 증가한 40억400만 달러 로 무역수지는 17억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0억700만 달러 대 비 75.5% 늘어난 수치다.

다만, 수출 증가폭은 3월(61억1300만 달러, 전년동월 대비 31.7% ↑)에 비해 둔

4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013 (△5.0)	18,895 (△14.2)	6,113 (31.7)	5,811 (15.9)	21,532 (14.0)
수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006 (△2.4)	14,836 (△8.1)	4,176 (33.5)	4,044 (1.0)	15,699 (5.8)
무역수지	1,007	4,059	1,937	1,767	5,833

화했다.

4월 말 현재 무역수지 누계는 58억3300 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40억5900만 달 러 대비 43.7% 증가했다. 수출이 215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17억3500만 달러, 수입은 40.8% 증가한 9억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

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6.6%), 유럽연 합(51.1%), 중남미(55.1%) 등은 증가했 으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19.7% 감소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국(-12.5%)도 3개월 연속 줄었다.

품목별로는 수송장비(15.2%), 반도체 (2.5%) 등이 증가했으며 기계류와 정밀 기기(-8.0%), 고무타이어 및 튜브(-22.2%), 가전제품(-42.2%) 등은 감소했 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0%

증가한 40억7600만 달러, 수입은 6.9% 감 소한 31억1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 6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품목별로 석유제품(91.7%), 화 공품(4.8%)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 (-18.1%), 기계류와 정밀기기(-29.4%) 수출장비(-9.0%)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동남아(74.3%)가 큰 폭으 로 증가한 반면 중국(-29.5%), 미국(-17.8%), 일본(-4.6%), 유럽연합(-35.5%) 등은 감소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 입주전망 반등했지만...전남은 '제자리'

광주 14.3p ↑ 85.7...전남은 57.1 최하위권 수준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전망이 한 달 만 에 반등했지만 전남은 회복 흐름에 올라 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도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고 있어 경기 부진 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 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의 입주전망 지수는 85.7로 전월(71.4)보다 14.3p 상 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폭(4.8p)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전남은 57.1로 전월과 동일한 수 준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74.1)은 물론 지방 평균(73.2)에도 크게 미치지 수 치다.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강원 (55.5)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방 부 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것으로 분석 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국내 증시 호황에 따 른 해외자본 유입 등 시장 유통성이 증가 하고 있다"며 "향후 자금흐름 변화가 신 축 아파트 입주 여건 개선과 미입주 부담 완화 등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 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 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 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 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광주 역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아 시장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69.3)보다 4.8p 상승했다. 지난해 전 국 적으로 지수가 25p 이상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나타났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

적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는 울산(91.6, 22.4p ↑), 세종 (83.3, 6.4p ↑) 등과 함께 수도권을 제외 한 특·광역시 가운데 상승폭이 큰 지역으 로 분류됐다. 반면 부산(68.7, 6.3p ↓)과 대구(77.2, 2.8p ↓)는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71.4, 21.4p ↑), 전북(90.9, 10.9p ↑), 제주(66.6, 6.6p ↑), 경남(72.7, 6.1p ↑), 경북 (75.0, 2.3p ↑)은 상승했고 강원 (55.5, 4.5p ↓), 충남(60.0, 3.6p ↓)은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 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 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 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광주 역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아 시장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69.3)보다 4.8p 상승했다. 지난해 전 국 적으로 지수가 25p 이상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나타났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

적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는 울산(91.6, 22.4p ↑), 세종 (83.3, 6.4p ↑) 등과 함께 수도권을 제외 한 특·광역시 가운데 상승폭이 큰 지역으 로 분류됐다. 반면 부산(68.7, 6.3p ↓)과 대구(77.2, 2.8p ↓)는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71.4, 21.4p ↑), 전북(90.9, 10.9p ↑), 제주(66.6, 6.6p ↑), 경남(72.7, 6.1p ↑), 경북 (75.0, 2.3p ↑)은 상승했고 강원 (55.5, 4.5p ↓), 충남(60.0, 3.6p ↓)은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 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 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 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광주 역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아 시장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69.3)보다 4.8p 상승했다. 지난해 전 국 적으로 지수가 25p 이상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나타났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

적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는 울산(91.6, 22.4p ↑), 세종 (83.3, 6.4p ↑) 등과 함께 수도권을 제외 한 특·광역시 가운데 상승폭이 큰 지역으 로 분류됐다. 반면 부산(68.7, 6.3p ↓)과 대구(77.2, 2.8p ↓)는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71.4, 21.4p ↑), 전북(90.9, 10.9p ↑), 제주(66.6, 6.6p ↑), 경남(72.7, 6.1p ↑), 경북 (75.0, 2.3p ↑)은 상승했고 강원 (55.5, 4.5p ↓), 충남(60.0, 3.6p ↓)은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 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 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 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광주 역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아 시장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69.3)보다 4.8p 상승했다. 지난해 전 국 적으로 지수가 25p 이상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나타났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

적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는 울산(91.6, 22.4p ↑), 세종 (83.3, 6.4p ↑) 등과 함께 수도권을 제외 한 특·광역시 가운데 상승폭이 큰 지역으 로 분류됐다. 반면 부산(68.7, 6.3p ↓)과 대구(77.2, 2.8p ↓)는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71.4, 21.4p ↑), 전북(90.9, 10.9p ↑), 제주(66.6, 6.6p ↑), 경남(72.7, 6.1p ↑), 경북 (75.0, 2.3p ↑)은 상승했고 강원 (55.5, 4.5p ↓), 충남(60.0, 3.6p ↓)은 하락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최근 대전 신협중앙연구소에서 '2026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신협재단, '2026 우리동네 어부바' 시동

전국 35개 신협·15개 봉사단 참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최근 대전 신협중 앙연구소에서 '2026년 신협 우리동네 어 부바'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역 밀착형 사 회공헌 활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총 5 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 혀다.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은 지역 신협과 임직원 봉사조직인 '두손모아봉사단'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 안을 기획·실행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공 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이 후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공동체 회복 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협재단은 각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방 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이 제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중점을 뒀 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 환자의 고립 에 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농촌 교통약 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택시 운영, 가정경제아동 대상 진로·금융 교육 지원 등이 추진된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35개 단위 신협과 15개 시·도 임직원 봉사단이 참여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신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 유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방 안을 논의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88.23p(6.12%) 내린 7493.18에 장을 마쳤다.

## 전남·광주 농협, 작년 사회공헌 1100억 환원

복지·의료·장학·농촌지원 확대...지역 밀착형 사업 강화

지난해 전남·광주 농협이 복지·의료· 장학·농촌지원 등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에 11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본부에 따 르면 지역 농·축협과 농협중앙회, NH농 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100% 국내 자본 구조를 기반으로 지역사 회 환원과 공익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의료 분야 지원도 이어졌다. 주민 건강 검진과 무료 의료봉사에는 93억원이 투입 됐으며 무료 한방진료와 건강검진, 취약 계층 의료보조장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농업·농촌 지원과 복지· 의 료, 인재 육성, 지역활력 사업 등에 총 1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했다.

가장 큰 비중은 농촌 현장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 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촌 일손돕기와 재해복구 활동은 140여건 진행됐다. 농기 계 무상수리와 영농자재 지원에는 275억

원이 투입됐으며,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 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지원 도 병행됐다.

의료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재해복구 지 원과 취약계층 농산물 기부, 주택 개보수 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100% 국내 자본 구조를 기반으로 지역사 회 환원과 공익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지역 인재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도 힘을 쏟고 있다. 농협은 최근 5년간 광 주·전남 지역에서 약 1500명의 신규 직원

을 채용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50여명 의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역 학생과 농업 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에는 31억원이 지원됐다.

여성과 노인 복지 분야에도 34억원이 투입됐다. 문화센터와 주부대학, 장수대 학, 노년교실 등 주민 참여형 활동이 운영 됐으며 다문화가정 정착교육과 여성대 학, 멘토링 등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도 함께 이뤄졌다.

이 밖에도 고항사랑기부제 정착 지원 과 지역축제 지원, 우리쌀 소비촉진 운동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활동도 이어졌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농협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농업·농촌 지원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우치동물원, 판다 오면 연 100만명 찾는다"

광주연구원, 정책포커스 발간...경제효과 최대 769억 기대  
"광역 생태관광 벨트 구축·판다 테마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연구원은 판다유치가 강력한 방문객 증가 효과와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약 58만명 수준 인 우치공원 연간 방문객은 판다 유치 시 70만~100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 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소비지출 증 가액은 연간 123억원에서 최대 450억 원, 생선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 간 210억원에서 최대 7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우치동물원이 판다 유치가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 다. 곰과 대형동물 사육 경험이 풍부한 데다 서식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인근 담양을 통해 판다 의 주 먹이인 대나무 공급이 원활하다 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우치동물원이 판다를 유치할 경 우 남부권에서 유일하게 판다를 관람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호 남권 관광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정책포커스는 판다유치를 고려한 우 치동물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 다. 우선 소용 차단 특수 방울 설계와 온도·습도 자동 조절 시스템을 갖춘 돔 형태의 '판다 생태가든' 조성이 제안됐 다. 또 단방향 투시 유리 적용과 AI 기 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동 물 스트레스를 줄이는 친환경 사육환경 구축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 판다와 사육사의 일상 을 담은 영상 콘텐츠 제작, 우치동물원 을 중심으로 한 광역 생태관광 벨트 구 축과 판다 테마 관광 프로그램 개발 필 요성도 제시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코스피 '8000' 찍고 와르르

7500선 급락...역대최대 변동

코스피는 장 초반 사상 최초로 8000선 을 돌파한 뒤 외국인인 대규모 매도세에 급락하면서 7500선을 내렸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9.66p (0.37%) 내린 7951.75로 출발해 7493.18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8046.78까지 치솟은 지수는 곧 하락 전환했고 이후 급격히 낙폭을 확대 해 한때 7371.68까지 추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는 역대 가장 컸다.

고점 대비 675.1p 빠진 것으로 나타났 다. 적전 역대 1위는 지난 3월 4일 기록한 612.67p다.

종가기준 코스피 하락폭(488.23p)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역대 1위는 지난 3 월 4일 기록한 698.37p다.

급락장에 이날 오후 1시 28분 코스 피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 (사이드카)가 약 한 달 만에 발동되 기 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조2291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지만 외국인인 1조 536610억원, 1조 733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 었다.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7거래일 동안 총 31조8985억원을 팔아치웠다.

시장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하이닉 스(-7.66%)가 181만9000원으로 내려왔 다. 삼성전자(-8.61%)도 급락해 27만 500원까지 밀려났다.

이밖에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 캐어(-6.23%), LG에너지솔루션(-5.66%), 삼성전기(-1.37%), 두산에너 빌리티(-5.38%) 등이 내렸다.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 반 상승하던 현대차(-1.69%), 기아(-5.67%), 현대모비스(-3.23%) 등도 줄 줄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LG전자(10.83%), 삼성화재 (2.97%)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61.27p (5.14%) 급락한 1129.82에 장을 마쳤 다.

지수는 전장보다 6.14p(0.52%) 상승 한 1197.23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38억원, 1678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 인은 363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

이밖에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 캐어(-6.23%), LG에너지솔루션(-5.66%), 삼성전기(-1.37%), 두산에너 빌리티(-5.38%) 등이 내렸다.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 반 상승하던 현대차(-1.69%), 기아(-5.67%), 현대모비스(-3.23%) 등도 줄 줄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LG전자(10.83%), 삼성화재 (2.97%)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61.27p (5.14%) 급락한 1129.82에 장을 마쳤 다.

지수는 전장보다 6.14p(0.52%) 상승 한 1197.23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38억원, 1678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 인은 363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

이밖에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 캐어(-6.23%), LG에너지솔루션(-5.66%), 삼성전기(-1.37%), 두산에너 빌리티(-5.38%) 등이 내렸다.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 반 상승하던 현대차(-1.69%), 기아(-5.67%), 현대모비스(-3.23%) 등도 줄 줄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LG전자(10.83%), 삼성화재 (2.97%)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61.27p (5.14%) 급락한 1129.82에 장을 마쳤 다.

지수는 전장보다 6.14p(0.52%) 상승 한 1197.23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38억원, 1678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 인은 363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

이밖에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 캐어(-6.23%), LG에너지솔루션(-5.66%), 삼성전기(-1.37%), 두산에너 빌리티(-5.38%) 등이 내렸다.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 반 상승하던 현대차(-1.69%), 기아(-5.67%), 현대모비스(-3.23%) 등도 줄 줄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LG전자(10.83%), 삼성화재 (2.97%)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61.27p (5.14%) 급락한 1129.82에 장을 마쳤 다.

지수는 전장보다 6.14p(0.52%) 상승 한 1197.23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38억원, 1678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 인은 363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

